

# 종회의장 자승 호계원장 법등 포교원장 혜충 스님

## 조계종 14대 중앙총회, 부의장에 장주·동광 스님... 사무처장 주경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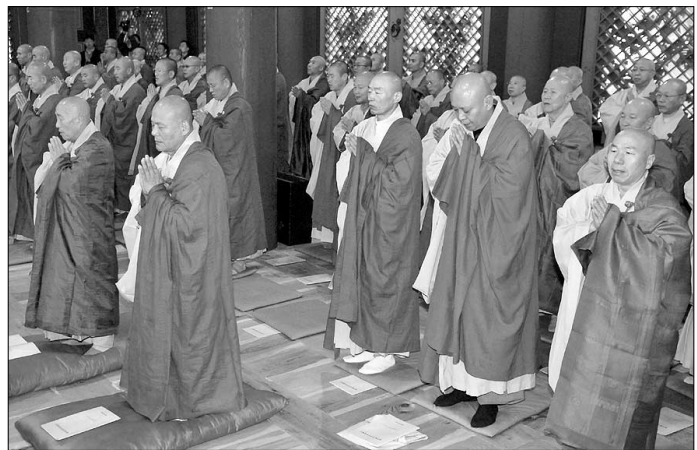
조계종 제14대 중앙총회 전반기 의장에 자승 스님이 당선됐다. 또한 호계원장에 법등 스님, 포교원장에 혜충 스님이 각각 선출됐다.

조계종 중앙총회는 11월 1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제172회 정기중앙총회를 열고 제14대 중앙총회 의장단 구성 및 총 21개의 안건을 상정하며 보름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재적의원 76명 전원이 참석한 이날 총회에서는 자승 스님과 보선 스님이 전반기 중앙총회 의장에 입후보해 49표를 얻은 자승 스님 선출됐다. 수석부의장에는 장주, 차석부의장에는 동광, 사무처장에는 주경 스님이 만장일치 선출됐고 7개 상임분과위원 및 위원장을 각각 선임해 원구성을 마쳤다.

또한 2007년 1월 21일 임기가 만료되는 호계원장 선거에서는 법등 스님이 종결 스님이 얻은 30표보다 13표를 더 얻어 당선됐으며 공석중인 제5대 포교원장에는 혜충 스님이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호법부장 임명 동의에 대해서는 38명이 찬성해 심우 스님이 임명됐고 법홍, 혜승, 월서, 지중, 고우, 밀운 스님 등 6명의 스님들이 원로의원으로 추천됐으며 2007년 1월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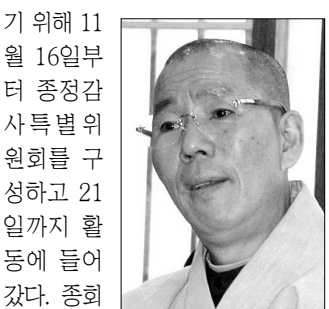


조계종 제14대 정기 중앙총회가 11월 1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원했다. 사진은 조계사 대웅전에서 열린 개원 법회 모습. 사진=고영배 기자

일 임기가 만료되는 6명의 종립학교 관리위원 선출에 대해서도 총 7명이 입후보해 태진, 범해, 보인, 보원, 광조, 일법 스님이 선출됐다.

이밖에도 지난 11월 4일 임기 만료된 송광사 주지 현봉 스님 후임으로 용주사 주지 정호 스님을 법규위원으로 선출했으며 제4기 고시위원으로 법산, 혜국, 무관, 지현, 지안, 종석, 설우, 일초, 지형 스님 등 9명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가결시켰다.

조계종 중앙총회는 불기 2550년도 중앙총무기관 및 직영·특별분담금사할 조정감사의 건을 심의하



호계원장 법등 스님

기 위해 11월 16일부터 중정감사 특별위원회 구성하고 21일까지 활동에 들어갔다. 총회는 11월 22일 오후 2시 속개해 불기2551년도 중앙총무기관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 건 등 11개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김두식 기자 doob@buddhapia.com

### “직능대표선출법 개정 신중히” 강원교직자회 입장 밝히

전국강원교직자회(회장 우진, 통도사 강주)는 11월 13일 ‘중앙총회 의원선거법(직능대표 선출기준)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소견’이라는 문건을 배포하고 “개정법안은 한마디로 졸속으로 만들어진 법안으로 수좌회나 교직자회, 종도들의 여망을 등한시한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조계종 총무원이 지난 11월 3일 ‘중앙총회의원 선거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전국강원교직자회는 “종단 구성원의 여론과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입법 절차를 충분히 거쳐 그동안의 불화를 씻어 내는 신중한 입법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두식 기자

### 포교부장에 동법 스님

조계종 새 포교 부장에 동법 스님(사진이 11월 15일자로 임명됐다).

동법 스님은 1978년 사미계, 85년 구족계를 수지했다. 92년 동국대 불교대학을 졸업한 뒤 95년 일본불교대학원 석사, 2000년 동국대 불교대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법주사 포교국장,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사무국장 등을 역임했으며, 조계종 제13회 포교대상 원력상을 수상했다.



남동우 기자

### 조계종 포교사 자격 갱신

조계종 포교원은 2007년 2월 자격 유효기간 만료자를 대상으로 일반포교사 자격갱신을 실시한다.

갱신을 원하는 포교사는 신청서 1부, 팀장 및 지역단장 확인서 1부, 구 포교사증, 반명함판 사진 2매 등을 첨부해 11월 15일부터 2007년 1월 15일까지 해당 지역 포교사단으로 접수하면 된다. (02)2011-1891

남동우 기자

### 수현스님, 비구니 최초로 상임분과위원장에

조계종 총회 역사상 처음으로 비구니 분과위원장 스님이 탄생했다.

조계종 중앙총회는 제172회 전반기 중앙총회 정기회의에서 사회분과위원장으로서 수현 스님(사진)을 선임했다.

수현 스님은 “능력있는 스님들이 많은데 중책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보성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수현 스님은 제11, 12, 13대 중앙총회의원을 역임했고 현재 전국비구니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다.

김두식 기자

# “어린이 포교에 최선... 영상포교도 주력”

## interview 조계종 신임 포교원장 혜충 스님

“부처님께서 두 사람이 함께 한 곳에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따로 가면 포교를 더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계종 새 포교원장 혜충 스님(부산 감로사 주지·사진은 11월 15일 “포교는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것인 만큼 전 국토가 불국토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취임 소감을 밝혔다. 혜충 스님은 14일 열린 조계종 172차 임시중앙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총무원과 중앙총회, 교구분사, 중앙신도회 및 각종 단체들의 뜻을 존중하면서 열린 마음으로 포교원을 운영하겠다”는 혜충 스님은 특히 “포교원을 시스템화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어린이 포교와 관련 “불교를 꽃피우려면 어릴 때부터 부처님 품안으로 들어와야 한다”며 “어린이



“포교원 업무 시스템화로 효율적인 포교전략 구축”

포교가 곧 한국불교 미래라고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

졌다. 혜충 스님은 사찰 입구에 멀티비전을 설치해 불·법·승에 대한 설명을 영상으로 제공하며 등 영상포교와 불서발간을 비롯한 문서포교에도 많은 관심을 보였다.

“중앙총회의원들이 만장일치로 포교원장 추천에 동의해 준 것에 대한 답례로 처음도 포교, 중간도 포교, 끝도 포교라는 생각으로 일하겠습니다. 내가 배운 것들을 이웃과 나눠 함께 불국토로 갈 수 있도록 다양한 포교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혜충 스님은 1956년 사미계, 63년 비구계를 수지했다. 해인사·범어사 승가대학, 동국대 불교학과를 졸업하고 동국대 불교대학원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대한불교신문을 창간했으며 현재 사회복지법인 불국토 대표이사, (사)참여불교운동본부 이사장, (사)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 총재, 부산 감로사 주지 등을 맡고 있다. 저서로는 <꽃도 너를 사랑하느냐> <새벽처럼 깨어 있으라> 등이 있다. 남동우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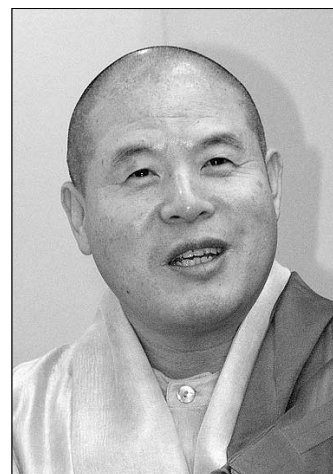
# “종책모임 의견 수렴 생산적 총회로”

## interview 제14대 전반기 중앙총회의장 자승 스님

“총회를 대표하는 의장을 맡게 되어 많은 부담감을 느낀다. 의장단 스님을 비롯해 여러 종책모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생산적인 총회를 운영할 계획이며 총무원과는 협력과 견제를 통해 불교 발전을 견인하겠습니다”

11월 13일 제172차 정기 중앙총회에서 제14대 전반기 중앙총회의장으로 선출된 자승 스님은 “최우선 과제가 화합인 만큼 반대표를 던진 스님들의 뜻도 존중해 의장에 최대한 잘 반영하고 종책 모임간의 의견이 대립되더라도 어느쪽에 치우치지 않고 의견을 조율해 종단 화합을 이루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자승 스님은 또 “현안으로 떠오른 선거법, 총무원법 등의 개정을 위해 종원총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며 “여러 스님들의 의견을 모아 현실적으로 개정이 필요한 법을



“필요하다면 법 개정해서 중앙승가대 지원할 터...”

개정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최근 중앙승가대가 불은사를 재

정지원사찰로 지정해달라는 요구에 대해 “특위를 구성해 중앙승가대 운영 실태를 조사해 필요하다면 종원총법을 개정해서라도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현 집행부의 인사가 독단적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인사는 총무원장 스님의 고유권한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1969년 정대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자승 스님은 연주암 주지, 총무원 재무부장, 총무부장을 역임했고 제10, 12, 13대 총회의원으로 활동했다. 현재 은정불교문화진흥원 이사장 소임을 맡고 있다.

한편 수석부의장에 선출된 불국사 부주지 장주 스님은 “14대 총회에서는 현실적으로 필요한 종원총법을 개정하고 화합 총회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차석부의장 동광 스님도 “의장스님을 잘 보필해 총회를 건설적이고 발전적인 총회로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피력했다. 남동우 기자

### 각 상임분과 위원 명단

- 총무원과위원회 상운(위원장), 법해, 지홍, 법진, 도영, 진화, 의연, 일문, 일관, 자제, 덕문, 지현, 선문, 일법, 도문 스님 등 15명
- 교육분과위원회 장적(위원장), 일초, 돈관, 선각, 원담, 성직, 혜원스님 등 7명
- 포교분과위원회 지원(위원장), 정

- 범, 주경, 효림, 보인, 일운 스님 등 6명
- 사회분과위원회 수현(위원장), 학담, 종훈, 동광, 성관, 영담, 진원, 자현, 성정 스님 등 9명
- 재정분과위원회 향적(위원장), 성월, 원경, 성묵, 법보, 원범, 법광, 보일, 각원, 정묵, 설우, 재현, 지준, 대오, 계호 스님 등 15명
- 호법분과위원회 도원(위원장), 진

- 만, 혜오, 무자, 선광, 태진, 종호, 장주, 현공, 노현, 정광, 태연, 운달, 경륜 스님 등 14명
- 법제분과위원회 장운(위원장), 지명, 보선, 영배, 정후, 광조, 성호, 장명, 해일 스님 등 9명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해월 인쇄인 : 노진환

110-734 서울특별시 중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FAX (02)737-0698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광고국 (02)2004-8213-7 온라인광고 애드부다피아 http://ad.buddhapia.com  
FAX (02)737-0696 온라인서점 예시이문 www.yosiamun.com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4-3379 /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 한국불교여래종 약사사

# 2006년 미얀마 성지순례자 모집

### 유네스코지정 미얀마 불탑 복원 낙성 대법회

황금의 나라, 탑의 나라 그리고 시간이 멈춘 땅으로 불리는 미얀마의 불교 성지를 여러 불자들과 함께 순례할 동참자를 모집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한국불교여래종에서 2003년부터 추진 중이던 땀민화 불탑 복원 완료함으로써 낙성 대법회를 거행할 예정이니 뜻깊은 대법회에 동참하시어 원만 기도성취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 순례일시 : 2006년 12월 24일부터 29일까지  
 ■ 낙성대법회 : 2006년 12월 25일  
 ■ 접수마감 : 2006년 12월 5일  
 ■ 여행지역  
**양곤** : 미얀마의 수도로써 인구 500만의 대도시로 우리나라의 70년대를 연상시키는 도로와 현대적인 시설의 호텔 등 과거와 현대가 공존하는 모습입니다. 미얀마의 상징인 세다곤 황금 대탑 및 주요 유적지를 순례하는 일정입니다.  
**바간** : 세계 최대의 고고학적 유적지 중 하나로써 미얀마 중부의 이라와디강가에 42평방 킬로의 면적에 2,500여기의 탑들이 보존되고 있으며 유네스코에 의해 세계문화유산으로 보호되고 있는 고대이며 세계 최대의 불탑 유적지입니다.  
 ■ 주요 일정  
 까바에 화고다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 미얀마 바간 초등학교 자매결연식, 아마라푸라 종 바간 수도원 자매결연식

**주최 : 한국불교여래종 총무원    주관 : 성남 남한산성 약사사**

**문의 : 전화 031)734-3205 / 팩스 031)735-3374**

## 행자모집

한국불교여래종에서는 승가상 구현을 위하여 확고한 사명감과 눈 밝은 인재를 모집하고자 합니다.

▶ 모집대상

- ◆ 처음 승려가 되고자하는 자.
- ◆ 몸과 마음이 건전하고 건강한 자.
- ◆ 부처님의 일별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확고한 신념이 있는 자.
- ◆ 장기간 단체생활을 할 수 있는 자.
- ◆ 나이 및 학력 제한없음.

**한국불교여래종 총무원**  
충청북도 옥천군 동이면 우산리 산 72번지  
전화 : 043)731-2261 / 031)734-3205